

[2024년 기상청 정책 돋보기]

생명을 지키는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이제 광주·전남에도 울립니다

- 작년 6월부터 수도권에 시범 운영되어 국민 생명과 안전 확보에 큰 역할
- 올해 5월부터 수도권 정규 운영 전환 및 광주·전남으로 시범 운영 확대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지난해(2023년)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에서 한정적으로 시범 운영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직접 발송 제도를 올해(2024년)는 한층 더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지난해 12월 8일 규정 개정을 통해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됨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불명확했던 "극한 호우"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호우 긴급재난문자"로 용어를 통일하였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었을 때 기상청에서 국민에게 직접 발송된다. 또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되었을 때도 발송된다. 이는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하늘을 감시하는 기상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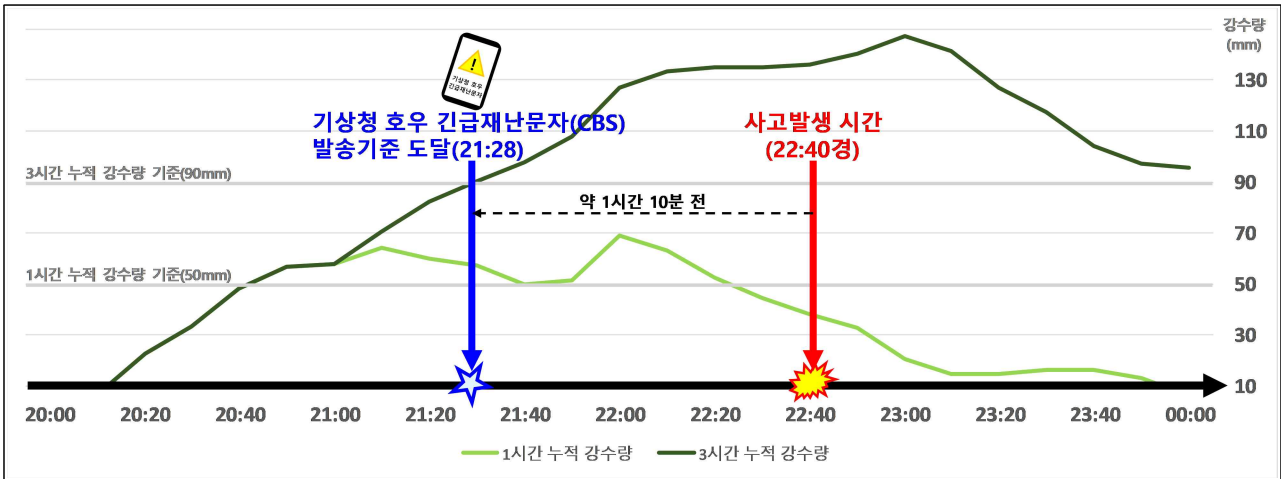
위험기상 발생 즉시 재난문자를 보냄으로써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신설된 제도로, 통신 3사(케이티(KT), 에스케이(SK)텔레콤, 엘지 유플러스(LG U+))와의 긴밀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다른 재난문자들과 달리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발송됨으로써, 정확히 위험 상황이 발생한 해당 지역의 국민들에게만 경고를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는 강점이 있다. 또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서, 현장에서 그 위험성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상청은 지난해 6월부터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하던 이 제도를 올해 여름철 방재기상 대책 기간이 시작되는 2024년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정규 운영으로 전환하고, 광주·전남지역에 대해 시범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상청에서 광주·전남 지역에 내린 강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27일 22시 40분경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인근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실종 사건으로부터 약 1시간 10분 전인 21시 28분경, 해당 지역에서 내린 비가 이미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 제도가 당시 광주·전남에서도 시행되었다면, 40 dB 이상의 경고음을 동반한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하고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유도함으로써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 2023년 6월 27일 20시~24시 함평군(함평AWS) 강수량 시계열 >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 기후위기로 인해 점점 위협적으로 변해가는 날씨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라면서, “기상청에서 발송된 재난문자를 확인하시면, 그 즉시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예보국 예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성목 (02-2181-0492)
		담당자	사무관	김강하 (02-2181-0493)